

# 청소년의 규칙적인 여가스포츠 참여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Participation in Regular Leisure Sports o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in Adolescents

조형선\*, 황선환\*, 방신웅\*\*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Hyungsun Cho(josagang@nate.com)\*, Sunhwan Hwang(shhwang@uos.ac.kr)\*,  
Shinwoong Bang(bigbbang7@gmail.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규칙적인 여가스포츠 참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목적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6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39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61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독립  $t$ -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가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 집단보다 여가스포츠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적으로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동참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가스포츠 비참가 청소년, 청소년 자신만 참여하는 집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가족친밀성을 제외하고는 여가스포츠 비참가 집단보다 청소년 자신만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집단이, 청소년 자신만 참여하는 집단보다는 부모가 함께 참가 하는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중심어 : | 청소년 | 규칙적 여가스포츠 참가 | 가족관계 만족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regular leisure sports o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in adolescents. To achieve this purpose, 650 studen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area were selected and survey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611 survey sample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and 39 survey samples were excluded because of untrustworthy response. Statistical program AMOS 18.0 was used to conduct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goodness of fit test, and SPSS 21.0 Window program was used to conduct analysis of frequency,  $t$ -test, and ANOVA. Through the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regular leisure sports h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compared to non-participation group. Seco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of parental participation group in regular leisure sport was high the most followed by lonely participation group and non-participation group. Finally, authors described the implications and future studies.

■ keyword : | Adolescents | Participation in Regular Leisure Sports |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정립하며,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깊은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1].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학업, 사회적 압력, 가족과의 갈등, 또래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학교폭력 및 흡연, 음주, 가출, 자살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나타낸다[2][3]. ‘2013 청소년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은 흡연 및 음주, 학교폭력, 왕따, 유해약물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가출, 범죄, 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4]. 특히, 청소년의 사망사고원인 중에서 자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가출율과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은 11.2%에 달하고 있으며,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 중 성적 및 진학문제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불화가 16.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4]. 또한 청소년 가출 경험의 원인으로는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61.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 개인 생계형 범죄로 나타났던 가출청소년의 범죄가 점차 조직적인 생활형 범죄로 변화되었으며, 가출 팸을 형성하여 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범죄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190만 2,700건의 범죄 중 청소년 범죄는 8만 3,060건으로 4.3%에 달하고 있다[5]. 이처럼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가정불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사회가 유지 및 존속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이며, 필수적인 사회집단으로 개인의 성격 및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다[6][7].

박수원[8]은 가족의 개념을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상호간의 강한 애정과 충성으로 맺어진 소규모의 사회체제라고 정의하면서 가족은 가족 내 구성원들이 전 생애

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가족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가족관계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 과정이다[9]. 가족관계는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10],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1]. 특히, 가족관계는 대인관계의 모태이며, 가정이 대인관계 훈련의 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족 개개인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12]. 따라서 가족관계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나쁘게 인식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시 말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자살충동, 범죄, 가출 등의 상황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

김선미[13]는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 비행율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노성호[14]는 사랑이 부족한 가족관계속에서 청소년이 비행과 좌절을 경험하며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관계 지각이 긍정적인 청소년은 낮은 비행을 경험하는 반면, 가족관계 지각이 부정적인 청소년은 보다 높은 비행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조미숙과 오선주[16]는 친구,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긍정적 가족관계의 결과물로서 애정, 존경, 심리적, 정서적 만족 등이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비행이 비단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가족관계가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적극적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심을 두었다. 여가스포츠는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증진 및 자기계발, 기분전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쟁성이 낮고, 놀이적 성격이 강한 스포츠 활동과 건강 활동 및 야외 활동 등 각종 활동

을 충족한다[17][18].

특히,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19-25]. 구체적으로 소재희[21]와 염두승[23]은 중학생의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과 같은 여가스포츠 참여가 긍정적인 교우관계와 사회성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태완[20]과 오명석[24]은 청소년의 즐거움과 생활의 충만감,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과 인간성 함양에 이바지 하는 여가활동이 바로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Verma & Larson[25]은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도기로서, 이시기의 여가활동은 성인으로서의 발달과 장래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지만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비행 원인의 상당부분이 가정불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근 여가활동 경향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6].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 형태에도 이처럼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 여부와 더불어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형태 즉, 부모와의 동참여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규칙적인 여가스포츠 참가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의 동참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감소를 위한 일환으로써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여부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연구문제 1), 부모의 동참 여부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연구문제 2) 그리고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형태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연구문제 3)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1.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 연구가설 2.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모의 참가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 연구가설 3.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 형태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의 표집은 여가스포츠에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의 표집을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의 청소년 중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350명을 표집 하였고,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의 표집을 위하여 수원 지역의 중학생 200명,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총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한 65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39부를 제외한 총 61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가스포츠 참여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분석을 위하여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을 여가스포츠 비참여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여가스포츠 활동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을 참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가스포츠 참가특성에 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여가스포츠 참가특성

특성	구분	사례 수(n)	백분율(%)
성별	남	417	68.2
	여	194	31.8
학년	초등 4~6학년	241	39.4
	중등 1~3학년	370	60.6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	참가	300	49.1
	비참가	132	21.6
	부모 동참	179	29.3
	부모 비동참	300	49.1
참가 기간	1년 미만	147	24.1
	1년 이상~2년 미만	97	15.9
	2년이상~3년미만	66	10.8
	3년이상~4년미만	55	9.0
	4년이상	103	16.9
	비참가	143	23.4
참가 빈도	주1회	281	46.0
	주2회	65	10.6
	주3회	53	8.7
	주4회 이상	69	11.3
참가 강도 (1회 참가시간)	비참가	143	23.4
	~30분 이하	10	1.6
	31분~60분 이하	91	14.9
	61분~90분 이하	262	42.9
	91분~120분 이하	74	12.1
	121분 이상	31	5.1
계		611	100

## 2.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스포츠클럽 교사와 초·중등학교 교사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작성 직후 수거하였다. 표집방법은 규칙적인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여가스포츠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여가스포츠 활동에 전혀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비참여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참여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참여집단의 경우 부모가 동참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동참 집단으로 부모가 동참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비동참 참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문항, 청소년의 규칙적인 여가스포

츠 참가 여부 1문항, 여가스포츠 참가 정도 3문항(기간/빈도/강도), 부모의 여가스포츠 동참 여부 1문항,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측정을 위하여 오유자[27], 박건주[28]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홍승연[2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집성 12문항, 친밀성 5문항, 신뢰성 4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와주고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친밀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이가 매우 좋고 친한 정도를 의미하며, 신뢰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29].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세부 측정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AMOS 18.0과 SPSS 21.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4.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 중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여부와, 부모의 동참여부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인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가족관계 만족도의 타당도 분석결과

요인	문항	$\beta$	S.E.	C.R.	AVE
가족관계 만족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잘 돕는다	.657	.024	.996	.952
	우리 가족은 대개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570	.036		
	우리 가족은 집안일에 열심이다	.643	.028		
	우리 가족은 하나라는 일체감이 있다	.761	.022		
	우리 가족은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671	.032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즉시 함께 시작 한다	.732	.029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 지원하고 도와준다	.772	.019		
	우리 가족은 공동체 정신이 강한 편이다	.758	.020		
	우리 가족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790	.019		
	우리 가족은 서로 사이가 좋다	.729	.02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관심과 시간을 많이 쏟는다	.781	.020		
	우리 가족은 종종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다	.679	.036		
친밀성	우리 가족은 식구들끼리의 싸움을 잘 하지 않는다	.652	.036	.980	.909
	우리 가족은 화를 낼 때 가족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조심한다	.731	.029		
	우리 가족은 몹시 화가 나더라도 물건을 내던지지 않는다	.592	.049		
	우리 가족은 식구들끼리 거의 때리지 않는다	.645	.035		
	우리 가족은 화를 내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13	.051		
	우리 가족은 집에서 하고 싶은 말을 무슨 말든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 한다	.740	.029		
신뢰성	우리 가족은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잘 털어 놓는다	.812	.024	.987	.962
	우리 가족은 돈 문제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한다	.821	.022		

Model Fit Indices:  $\chi^2/df= 558.04/167$ , CFI=.941, TLI=.933, RMSEA=.06

본 연구에서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하는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값과 만족할만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고려하여 내용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후, 재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 $\chi^2= 558.04$ ,  $df= 167$ ), Normed  $\chi^2=3.342$ , TLI=.933, CFI=.941, RMSEA=.06), 표준화  $\beta$  값의 수준(모든 표준화  $\beta$  값 .51 이상), 그리고 표준화  $\beta$  값의 유의수준(모두  $p<.05$ )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30][31].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0.5 이상일 때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32],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

은 모두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변인과 변인의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수치는 응집성과 친밀성변인 사이의 상관계수로 .917이었으며, 이 상관계수의 제곱인 .840보다 모든 AVE값이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에 대한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33].

표 3. 신뢰도 분석결과

변인	문항 수	Cronbach' $\alpha$
가족관계 만족도	응집성	.923
	친밀성	.761
	신뢰성	.834

### III.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청소년의 규칙적인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규칙적인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응집성, 가족친밀성, 가족신뢰성을 종속변수로 각각 투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규칙적인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청소년 집단( $M=3.44$ )이 여가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 $M=3.16$ ) 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t=5.20, p<.01$ ]

다음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 요인별로 규칙적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응집성, 가족친밀성, 가족신뢰성의 각 하위변인에 대하여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가족응집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집단( $M=3.85$ )이 여가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 $M=3.40$ )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t=5.66, p<.01$ ]. 둘째, 가족친밀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집단( $M=3.83$ )이 규칙적으로 여가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 $M=3.69$ )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t=3.69, p<.01$ ]. 마지막으로 가족신뢰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여가스포

표 4. 규칙적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검증

변인	참가 ( $n=479$ )	비참가 ( $n=132$ )	$t$	sig.
응집성	3.84	3.48	5.58	$\alpha.01$
친밀성	3.83	3.56	3.78	$\alpha.01$
신뢰성	3.73	3.40	4.00	$\alpha.01$
가족관계 만족도	3.82	3.49	5.23	$\alpha.01$

츠에 참가하는 집단( $M=3.73$ )이 여가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 $M=3.41$ )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t=5.20, p<.01$ ].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 2. 부모의 여가스포츠 동참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의 여가스포츠 동참 여부에 따른 여가스포츠 참가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동참여부(동참/비동참)를 독립변인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응집성, 가족친밀성, 가족신뢰성을 종속변수로 각각 투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였다.  $t$ -검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각 집단 간 평균값은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여가스포츠 동참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하는 집단( $M^c = 3.98$ )이 동참하지 않는 집단( $M^b = 3.73$ )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t=4.31, p<.01$ ].

다음으로 부모의 여가스포츠 동참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응집성, 가족친밀성, 가족신뢰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각각 투입하여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가족응집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동참하는 집단( $M^c = 4.00$ )이 동참하지 않는 집단( $M^b = 3.75$ )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t=4.16, p<.01$ ]. 둘째, 가족친밀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동참하는 집단( $M^c = 3.98$ )이 동참하지 않는 집단( $M^b = 3.73$ )보다 가족친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t=3.80, p<.01$ ]. 마지막으로 가족신뢰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동참하는 집단( $M^c = 3.90$ )이 동참하지 않는 집단( $M^b = 3.62$ )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t=3.60, p<.01$ ].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5.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스포츠 참여형태	n	가족관계 만족도		응집성		친밀성		신뢰성	
		M (SD)	F	M(SD)	F	M(SD)	F	M(SD)	F
a. 비참가	132	3.49(.06)		3.47(.06)		3.56(.06)		3.40(.06)	
b. 참가(부모 비동참)	300	3.73(.04)	22.95**	3.75(.04)	24.24**	3.73(.04)	14.24**	3.62(.05)	14.57**
c. 참가(부모 동참)	179	3.98(.05)		4.00(.05)		3.98(.05)		3.90(.06)	
post-hoc(Scheffe)		a < b < c		a < b < c		a, b < c		a < b < c	

\*\* p<.01

### 3.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서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여부(참가/비참가) 그리고 여가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의 부모 동참여부(동참/비동참)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로는 3개 집단 간 즉,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 여가스포츠에 참여하지만 부모가 동참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청소년의 여가스포츠에 부모가 동참하는 집단 간에 가족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 3에서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여부와 여가스포츠 참가시 부모의 동참여부에 따른 3개 집단(a:비참가/b:참가(부모 비동참)/c:참가(부모 동참))별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가스포츠 참여형태를 독립변인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각각 투입하여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여가스포츠 참여형태를 독립변인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608)=22.95, p<.01].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하는 집단(M=3.98)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만 부모는 동참하지 않는 집단(M=3.73),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M=3.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하위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가스포츠 참여형태를 독립변인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각각 투입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첫째,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응집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의 응집성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608)=24.24, p<.01].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라 응집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하는 집단(M=4.00)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만 부모는 동참하지 않는 집단(M=3.75),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M=3.4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친밀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의

응집성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608)=14.24, p<.01$ ].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라 친밀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하는 집단( $M=4.00$ )과 자녀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만 부모는 동참하지 않는 집단( $M=3.75$ ), 그리고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하는 집단과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 $M=3.56$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자녀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만 부모는 동참하지 않는 집단과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신뢰성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의 신뢰성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608)=14.57, p<.01$ ].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라 응집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하는 집단( $M=3.90$ )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만 부모는 동참하지 않는 집단( $M=3.62$ ),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 $M=3.40$ )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 IV. 논의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 원인의 상당부분이 가정불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여부와 청소년의 여

가스포츠 활동에 부모 동참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그리고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1의 분석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여가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에서도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 및 부모의 스포츠 참가가 가족구성원 간의 긍정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가족응집력을 향상시킨다는 안진혁[2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청소년이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 보다 가족관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진혁[2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각자 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지에 따른 가족응집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인 반면,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함께 동참하는지 여부에 따른 가족응집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안진혁[2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가설 2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자신만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때 보다 청소년인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할 때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요인도 모두 부모가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동참할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교육에 부모가 동참할 때 자녀양육태도와 부모-자녀의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이라는 강경애[34]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연구결과이다. 특히 부모와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10대의 비율이 6%에 불과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26]의 최근 여가활동 동반자 조사결과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 일탈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청소년 일탈 문제 해소에 가족관계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청소년의 일탈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국가의 정책을 집중하고 자원을 투입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가설 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형태(비참가/참가-부모 비동참/참가-부모동참)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비참가 집단보다 참가-부모 비동참 집단이, 참가-부모 비동참 집단보다는 참가-부모동참 집단이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가족친밀성의 경우는 비참가 집단과 청소년 자신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간에 가족친밀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친밀성의 경우 단순히 자녀를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는 여가스포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친밀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친밀성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와주고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친밀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이가 매우 좋고 친한 정도를 의미하며, 신뢰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29]. 따라서 가족응집성이나 가족신뢰성은 스포츠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극복, 이해, 타협, 승패에 대한 인정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 가족관계에 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는 반면 친밀성은 부모-자녀 상호간에 좋아하고 친한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의 행동적 경험의 상호공유가 중요하며, 이는 부모-자녀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할 때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자녀만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모-자녀 간에 친밀도의 증가 효과는 미미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친밀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규칙적인 여가스포츠 참가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고, 여가스포

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의 부모 동참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 그리고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여가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 집단보다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별 분석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부모의 동참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부모가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동참할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별 분석결과 또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 집단 즉, 여가스포츠 비참가 집단, 청소년 자신만 참여하는 집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가족친밀성을 제외하고는 여가스포츠 비참가 집단보다 청소년 자신만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집단이, 청소년 자신만 참여하는 집단보다는 부모가 함께 참가 하는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밀성의 경우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청소년 자신만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보다 부모가 함께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가 가족친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스포츠에 비참가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자신만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집단 간에는 가족친밀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청소년의 규칙적 여가스포츠 참여의 긍정적 효과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여가스포츠 참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밝혀졌으나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의 동참여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공백

을 보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의 장려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일탈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의 장려와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개발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여가스포츠 참가가 부모나 가족이 느끼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결과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부모가 동참하는 것이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관계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친인척과의 친밀도 등으로 구성된다[35]. 이처럼 가족관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관계의 형태와 여가스포츠 참여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가족 친밀성의 경우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과 청소년 자신만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1] 최미숙,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2014.

- [2] 김성봉, 문제행동 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통합적 접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2012.
- [3] 박경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스트레스와 집단따돌림 및 사회적지지,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13.
- [4]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 2013.
- [5] 오세연, “가출범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현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3호, pp.147-172, 2013.
- [6] 김양희, 가족관계학, 수학사, 2000.
- [7] 한혜숙, 남녀중학생의 가족영역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도, 흥미도, 실생활 적용도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1992.
- [8] 박수원,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03.
- [9] 유영주,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 학회, 제2권, 제1호, pp.111-129, 1984.
- [10] 이승원, 김동배, 이주연,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07-125, 2008.
- [11] 한경혜, 송지은, “중년 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문화, 제13권, 제1호, pp.51-74, 2001.
- [12] 정성경, “가족관계 증진 집단상담 참가자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 제10권, 제1호, pp.122-155, 2005.
- [13] 김선미,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1995.
- [14] 노성호,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1992.
- [15] 노길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

- 논문, 1998.
- [16] 조미숙, 오선주,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 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제4권, 제1호, pp.67-89, 1999.
- [17] 김종민, “여가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 스포츠과학논문집, 제22권, 제1호, pp.1-13, 2010.
- [18] 김홍백, *여가스포츠 총론*, 서울: 형설스포츠, 2008.
- [19] 김지은, *노인의 여가스포츠활동을 통한 가족유대감 얻기: 근거이론적 접근*, 국민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2006.
- [20] 김태완, *중학생들의 여가스포츠 활동 실태조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03.
- [21] 소재희,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가가 교우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13.
- [22] 안진혁, *중고등학생과 부모의 스포츠 참가의 의사소통 및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체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10.
- [23] 염두승, “청소년의 여가 스포츠 활동 참가와 사회적 관계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권, 제1호, pp.75-80, 2003.
- [24] 오명석,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시민성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07.
- [25] S. Verma and R. Larson(Eds), *Examining adolescent leisure time across cultur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o.99,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 [26] 문화체육관광부, *2013 여가백서*, 2013.
- [27] 오유자,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컴퓨터 게임중독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효과*, 한서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04.
- [28] 박건주, *경기지역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진로 성숙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09.
- [29] 홍승연,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 역할 인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13.
- [30]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pp.238-246, 1990.
- [31] L. T. Hu and P.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s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Vol.6, pp.1-55, 1999.
- [32]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s with unobservable variable and measurement,” *J of Marketing Research*, Vol.18, pp.39-50, 1981.
- [33] J. F. Hair, Jr.,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8.
- [34] 강경애, *부모교육 참가가 자녀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10.
- [35] 김미정, *종교활동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07.

저 자 소 개

조 형 선(Hyungsun Cho)

정회원



- 2015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석사졸업
- 2012년 11월 ~ 현재 : 국민생활체육전국스쿼시연합회 사무과장

<관심분야> : 여가사회학, 청소년 가족관계

황 선 환(Sunhwan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여가학 박사졸업
- 2010년 10월 ~ 현재 : 서울시립  
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여가사회학, 여가심리학, 여가경영, 청소년 캠프

방 신 응(Shinwoong Bang)

정회원



- 2012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학  
박사졸업
- 201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  
교 연구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경영학, 여가경영, 스포츠조직의  
위기관리